

페퍼스, 13연승 흥국의 '연승 무패' 바람 못 막았다



김연경에 힘없이 무너져 0-3 셋아웃 패 14일 GS와 홈경기...범실 줄이기 관건

연승을 노리던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흥국생명의 '13연승' 제물이 됐다. 페퍼스는 지난 10일 인천삼산빌드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3라운드 첫 경기에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에 세트스코어 0-3(24-26 18-25 18-25)으로 졌다.

2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GS칼텍스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던 페퍼스가 기세를 이어 '대어 사냥'에 나섰다. 18개의 범실(상대 9개)을 쏟아내면서 두 경기 만의 리턴 매치에서도 흥국생명에 셋아웃 패배를 당했다.

흥국생명은 3개의 서브에이스 포함 17점을 올린 김연경에 앞세워 이번 시즌 무패행진을 이어가면서 13연승을 달렸다. 13연승은 흥국생명 구단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이다.

페퍼스에서는 테일러(공격 성공률 36.36%)와

박정아(35.14%)가 14득점씩 올렸고, 이한비가 11득점(30.30%), 장위가 6득점(42.86%)을 만들었지만 승리에는 역부족이었다.

승점을 더하지 못한 페퍼스(4승 9패·승점 12)는 4위 정관장(7승 6패·승점 21)과 승점 9점 차를 유지하고 있다.

1세트에서는 서로 따라잡고 따라잡히는 접전이 이어졌다.

23-23에서 하혜진의 블로킹이 성공했지만, 흥국생명 피치의 연속 블로킹 득점이 나왔고 박사람이 센터라인을 침범하는 범실을 기록하면서 24-26으로 1세트가 마무리됐다.

페퍼스의 첫 세트 리시브 효율이 54.17%(흥국생명 25%)에 달하면서 총총한 수비가 공격 득점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기선 제압에 실패한 페퍼스는 2세트에서

김연경-투트쿠-정윤주의 '삼각편대'에 막혀 고전했다. 11-11 동점에서 11-19까지 점수 차가 벌어졌고, 18-24 상황에서 전개된 테일러의 공격이 코트 밖으로 나가면서 2세트도 흥국생명에 내줬다.

3세트는 박정아의 선취 득점으로 기분 좋게 시작했다.

이어 테일러가 백어택, 하혜진이 속공, 박정아가 블로킹을 이용한 공세를 펼쳤지만, 흥국생명의 '해결사' 김연경이 번번히 득점 흐름을 차단했다.

그리고 18-24 상황에서 테일러의 백어택이 아웃되면서 경기는 페퍼스의 패배로 마무리됐다.

페퍼스의 팀 공격 성공률은 35.83%로 42.86%의 흥국생명에 뒤처졌지만, 리시브 효율은 30.99%로 페퍼스가 28.07%의 흥국생명에 앞섰다.

앞선 GS칼텍스전에서 21득점을 폭발한 테일러가 이번 경기에서도 14득점을 만드는 등 페퍼스가 한층 견고해진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파죽지세' 흥국생명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한편, 페퍼스는 오는 14일 오후 4시 광주 페퍼스 타디움에서 GS칼텍스와 두 경기만에 재회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지난 10일 인천삼산빌드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3라운드 첫 경기에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에 세트스코어 0-3으로 셋아웃 패했다. 공을 처리하기 위해 테일러가 몸을 던지고 있다. (KOVO 제공)

선거 '과열 양상' ... 대한체육회장 후보 8명 역대 최다

3선 도전 이기흥 '사법 리스크'에 후보 난립...체육계 변화 바람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스포츠 대통령'이 되려는 경쟁이 다자구도 속에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안상수(78) 전 인천시장은 오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회장 후보로 공식 출마를 선언한다고 11일 밝혔다.

안 후보는 "2014 인천아시아계급 유치 노후와 인적 자원을 통해 2036 서울 올림픽 유치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을 막고 체육 행정의 정상화와 잘 사는 체육인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김용주(63)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도 "스포츠 산업과 시대의 흐름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 체육정 신설 등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거나 출마 의지를 공식화

한 후보는 총 8명에 이른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당한 이기흥(69) 현 회장이 3선을 노리는 가운데 강신욱(68) 단국대 명예교수,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 박장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 오주영(39) 전 대한세탁카로협회장, 강태선(75) 전 서울시체육회장이 이미 출마표를 받았다.

오는 24, 25일 체육회장 후보자 등록 일정을 앞두고 현재까지 8대 1로 역대 최대 경쟁률이다.

후보 8명의 이력은 교수, 경기단체장, 시도체육회장 등으로 다양하고, 나이가 30대와 40대, 50대 각 1명, 60대 3명, 70대 2명으로 고루 퍼져 있다.

체육회장 선거에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필까.

5명이 출마했던 2016년의 경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여서 열기가 뜨거웠다. 올해 선거에서는 특별히

눈에 띄는 이슈는 없지만 체육회 변화 열망이 강하다는 게 다자 구도의 첫 번째 이유다.

이기흥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후보들이 난립하는 배경이 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정검단의 조사에서 이 회장은 직권 채용 비리 및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또 인천선수촌 시설 관리업자 선정 과정의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의 핵심 측근 2명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 회장이 출마를 포기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하고도 완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회장이 3선 도전을 공식화하면 나머지 7명의 후보가 '반기흥 연대'를 통한 단일화 논의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체육회장 선거에 역대 최다인 8명이 출마 의지를 보인 가운데 오는 24, 25일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면 '스포츠 대통령'이 되려는 경쟁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 아시아선수권 준우승

이연경 MVP 선정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제20회 아시아 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를 준우승으로 마무리했다.

한국은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이번 대회 일본과의 결승에서 24-25로 아쉽게 패했다. 2012년부터 최근 6연속 이 대회에서 우승해 온 한국은 이번 준우승으로 대회 7연패 달성에 실패했다.

반면 일본은 2004년 이후 20년 만에 패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선수권대회 상위 4개국에 주어지는 2025년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획득한 것으로 아쉬움을 달렸다.

결승에서 한국은 김보은(삼척시청), 우빛나(서울시청), 이연경(경남개발공사), 정지인(대구시청)이 각 4골씩을 넣으며 활약했지만 결국 한 점 차로 승리에 닿지 못했다.

경기 전반까지 한국은 좋은 흐름을 보이며 12-9로 앞섰지만 후반전에 돌입한 지 3분도 되지 않아 연속 세 골을 내주며 일본과 동점이 됐고, 이후 팽팽한 싸움이 계속됐다.

20-22, 한국이 2골 차로 뒤진 상황에서 서아루(광주도시공사)와 김보은이 1골씩 넣으며 추격했으나 일본이 속공으로 맞받아치면서 2골 차가 유지됐다.

경기 종료 약 1분을 남기고 한국은 우빛나의 득점으로 23-24를 만들며 1골 차로 따라붙었지만, 일본 아이자와 나쓰키가 골을 터뜨리며 사실상 승리를 확정했다.

이후 정지인이 1골을 추가하면서 경기는 24-25로 마무리됐다.

한편,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MVP)로는 이연경이 선정됐고, 베스트 7에는 정지인이 라이트백 부문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

'바둑 여제' 최정, 5번째 여자기성 획득

일본 천재 소녀 스미레에 불계승

한국 여자바둑의 간판 최정(28) 9단이 일본 천재 소녀 나카무라 스미레(15) 3단을 꺾고 통산 5번째 여자기성 타이틀을 획득했다.

최정은 10일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8회 여성 여자기성전 결승 3번기 최종국에서 스미레에게 155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1국을 패한 뒤 2, 3국을 내리 이긴 최정은 이로써 종합전적 2-1로 여자기성전 우승컵을 안았다.

최정이 여자기성에 오른 것은 2·3·4·6회 대회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번 최종국에서 흑을 잡은 최정은 중반 우변 전투에서 미세한 우세를 확보한 뒤 기세를 몰아 백대마를 포획하며 KO승을 거뒀다.

최정은 "결승 3번기 중에서 오늘 바둑 내용이 가장 좋았던 것 같다"며 "스미레 3단은 아직 초기에 비해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 같다. 아직 어린 기사인 만큼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예측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최정은 2010년 입단 이후 통산 33번째 타이틀을 획득했다.

지난 3월 한국기원으로 이적한 스미레는 10개



최정 9단이 여자기성전에서 다섯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기원 제공)

월 만에 첫 우승컵에 도전했으나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다.

스미레는 지난 6월 제7회 국제바둑총향 선발대회에서 우승했으나 한국기원이 인정하지 않는 비공식 대회였다.

여자기성 타이틀을 놓친 스미레는 12~14일 열리는 제29회 하림배 여자국수전 결승 3번기에서 김재영 9단을 상대로 첫 우승에 다시 도전한다.

/연합뉴스

'체육회장 출마'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투명한 체육회 만들겠다"

비인기 종목 활성화 방안 언급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의지를 밝힌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투명한 시스템을 통한 변화'의 의지를 드러냈다.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 '블랙아크' 회장이기도 한 강 후보는 1990년대부터 대한산악연맹 부회장을 역임하며, 대한체육회 대의원, 서울시체육회 이사, 대한골프협회 이사 등을 거쳤고, 지난해부터 서울시체육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지난 10일 광주시체육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강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이기흥 회장의 운영 형태를 비판하며,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체육회가 누구를 위한 체육회냐. 체육인을 위한 체육회 아닌가. 근데 이기흥을 위한 체육회가 돼버렸다"며 "'스포츠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 대통령이라는 건 최고의 권력자가 가지는 거 아닌가. 그런 안 된다고 생각한다. 권력을 잡으면 불통이 되고, 독선이 되고, 인사권을 휘두르게 되고, 자금을 갖게 된다. 그래서 불



대한체육회장 출마를 선언한 강태선 후보가 10일 광주시체육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어 그는 "체육회는 시스템으로 관리하면 아주 투명해져 의심할 게 없어질 것이다. 사람은 거짓 말할 수도어도 기계, 시스템은 거짓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인기 종목 활성화에 대한 방안도 언급했다.

강 후보는 "옛날 복싱은 7-80년대 (인기가) 최고였다. 체육관 입장료를 사고 들어갈 정도였다. 기업은 소비자가 키우고, 연예인은 팬이 키우고, 스포츠는 관중이 키운다"며 "지금 종목단체는 경기만 한다. 경기에 축제 이벤트를 더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강 후보는 ▲투명한 예산 집행 및 외부 감사 시스템 도입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학교체육의 정상화와 선수 및 지도자 처우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24-25일이며 선거인단 투표는 내년 1월 14일 진행된다.

한편, 강 후보는 현재 출마의향서 제출에 따라 서울시체육회장 직무 정지 상태다.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화첩에 무등을 담다
: 조양희 개인전

일시 : 2024-12-6(금) ~ 2024-12-29(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12월)

일시 : 2024-12-01(일) ~ 2024-12-22(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12.13(금) 오후 7시 특별공연 (송년의 밤)

*12.20(금) 오후 7시 특별공연 (명인 협연의 밤)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2024. 12. 6. - 12. 20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